

동국, 아랍드리 느낌나무처럼

—개교 99주년을 기리며

홍신 선(시인·문예창작학과 교수)

장곡사(長谷寺) 골짜기
봄비 그치지 아랍드리 느낌나무들은
그의 내부에서
누군가 온몸의 응송같은 은물 서원들을 모두 짊어서
사경(寫經)했는지, 관주인듯 청정등 내걸었는지
애기 손톱만한 잎들을 일제히 내밀었다
몇 벌씩 베껴썼는지
해져서 너덜너덜 걸린
그 뒤의 여력 필 하늘들.

여느 한 나무의 백수(自壽)도 그렇거늘
동국대학교여
그동안 민족이 등 기대기도 하고 그 정신이
하늘곳집처럼 수장(收藏)되기도 했던
너는
인류 마음의 C 드라이브쯤 수수만 몇 역사로
저장되었으니
또 앞으로 백년 뒤에 오는 이들
쉽게 클릭 검색하여 내걸리라
원 천애(天涯)에
느낌나무같은 법등들을.



사진 정기훈(정보관리 05졸)



박영석, 인류 역사를 새로 쓰다 세계최초 산악그랜드슬램 달성

박영석(체고 91줄) 동문이 지난 5월 1일 오전 4시 45분에 북극점을 등정함으로써 마침내 세계최초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에 성공했다.

산악 그랜드슬램이란 한 산악인이 세계 8천m급 14좌와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남·북극점, 에베레스트)을 모두 등반하는 것으로 산악인이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기록이다.

1993년 아시아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박영석 동문은 히말라야 8천m이상 고봉 14좌를 완등(2001년)했으며 7대륙 최고봉 완등(2002년) 그리고 남극점(2004년) 무지원탐험 최단기록(44일)을 거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는 인류최초로 이룬 쾌거로서 건학 100주년을 앞둔 우리학교에 큰 선물이 되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강행군으로 예정보다 6일 앞당겨

박영석 동문이 북극원정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9일, 탐험에 나선지 54일 만에 북극점에 도착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걷는 강행군으로 예정보다 6일 정도 앞당겼다.

이번 북극점 원정은 지난 2003년 한차례 도전에 쓰러린 패배를 극복한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박 동문이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옷과 신발을 직접 디자인 하는 등의 준비정신이 한몫한 셈이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이 있기에 박영석 동문은 인류탄생 이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대한민국이, 우리 학교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박 동문이 이끄는 원정대는 예정일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원정대는 본격적으로 캐나다의 워드윈트에서 탐험을 시작했다.

북극점까지 775km, 리드와 난빙대 그리고 영하 40~50℃ 강추위와 싸우며

이 곳에서 북극점까지 거리는 775km. 그러나 리드(얼음이 갈라져 바닷물이 드러난 곳)와 난빙대(얼음산)등을 피하고 들어가기에 실제 2배 이상 되는 거리를 걸었다. 여기에 각자 100kg이 넘는 썰매도 끌어야만 했다.

또한 영하 40~50도의 강추위와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인 블리자드를 뚫어서인지 대원들은 얼굴과 손발 등에 동상을

입고 설맹 증세까지 보였다.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악전고투. 오로지 용맹정진하는 동국의 기상으로 이를 극복하며 세계만방에 위대한 인류의 도전정신을 전했다.

홍기삼 총장은 원정성공 후 박영석 동문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인류의 탐험역사를 새로 쓴 쾌거를 치하하며 18만 동문과 함께 건학 100주년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되었다"며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축하전보를 헌지로 보냈다.

박영석 원정대는 베이스 캠프인 레졸루트로 귀환해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탐험대 관계자들 및 가족들과 합류한 뒤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건학 99주년 기념식 6일 개최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 장기근속상 공로상 등 수여

건학 99주년 기념식이 오는 6일 오전 11시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김현해 이사장,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기념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발원문 봉독 △학교 연혁보고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장회장 축사 △표창장 및 공로상 수여 △교과제창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경재 북미

주 동문회 회장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한편, 장기근속상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30년 근속 △20년 근속 △10년 근속으로 나눠 수여되며 수상자는 정창현 전 총무처장과 김종진 학생선발실장을 비롯한 24명이다.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30년 근속 = 정창현 안중욱 김종진 이종석
△20년 근속 = 윤동규 김강수 김

재선 최봉주 황의돈 김중호 이동의 박현숙 서정옥 박순희 김홍균 김인호 정지복 배용학 권준호 윤주성 김남이

△10년 근속 = 박혁상 신하균 변시덕 이권학 윤의선 권우성 변민우 박재송 김규환 김성규 김영곤 김영환

공로상 수상자
이권학 김경희 정경실 최국진 손세호 구경덕 이상오 손봉오 구윤길 이경희 박준호

교수회 “공정한 수사결과 공개 촉구”

우리학교 비리의혹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가 지난 25일 불교계의 각종 단체와 언론 매체들을 통해 동국대학교 일부 재단 이사들의 비리 의혹 문제와 관련해 비리의혹에 대해 우리 학교와 재단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회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해 영담 이사는 “검찰 수사가 9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들은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재단은 객관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에

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대학 문제가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고 검찰의 엄정하고도 명백한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학교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우리 학교와 재단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회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해 영담 이사는 “검찰 수사가 9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들은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재단은 객관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에

게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수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학교 측의 관계자는 “교수회의 뜻은 알겠지만, 사전에 학교와의 충분한 논의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해 경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재단내부 고발 사건은 지난해 5월, 재단 내부 감사에서 불거져 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이며, 감사 3인 전원과 이사 5인 등 총 8명의 재단 감사 및 이사가 2004년 8월 초에 검찰에 고발하여 지금도 수사중에 있는 사건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회전무대

비밀통로

우리학교에는 몇몇 사람들만 아는 비밀의 문이 있다는데.

무슨 연유이고 하니 테니스장에서 총무로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사 길을 안다고 해도 막상 테니스장 입구를 나서면 즐비한 주택들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할 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테니스장 길목에서 총무로 가는 방향을 알려 주는 이정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에 회전 무대자 왈, “동약의 비밀문에서 길을 묻다(!)”

사물함 ? 욕심함 !

○...본교 사물함에서 부의부인 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알아본 즉, 몇몇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사물함을 더 신청해서 1인당 하나씩 분배되어도 모자랄 사물함이 더 부족해진 것이라고.

사물함 신청 시 학생증 확인등 좀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회전무대자 왈 “넘쳐나는 사물함 속 비어버린 당신의 양심은 어디로?”

문화예술회관(?)

○...문화관에서는 관객의 호응 없는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장충당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만큼 장충당 공원과 학교 측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런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수업을 위해 불륨을 줄이는 정도의 센스~!”

동국대학 5위

○...우리학교가 어느 인터넷 뉴스에서 선정한 서울시에서 가장 최퇴한 대학가 Best of Best(?)에 뽑혔다는데.

상황인 즉, 우리학교 주변인 총무로가 문화와 여가 시설 확보가 부족해 가장 최퇴한 대학가 5위로 선정된 것이라고.

학교는 최근에 설립된 총무아트홀과 같은 문화시설 유치에 대해 중구청과 협력사업을 펼치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화제의 신중후군, ‘총무로의 문화결핍증!’

209차 이사회 일산불교병원에서 열려

일산불교병원 운영자금 기채승인 등 안건 처리

지난 달 26일 일산불교병원에서 열린 제209차 이사회에 종상스님과 류주형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다음 회차로 연기됐던 총무로관 매입 관련 고발건에 관한 의건이 오고 갔다.

우리학교 상임이사 영배스님은 “지금이라도 학교 발전과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고소를 취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종상스님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모든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내용의 시비를 명백히 가릴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산불교병원 운영자금 300억원에 대한

기채를 승인했다. 대출 은행은 농협 총무로 지점으로 3년 만기이다. 이번 기채 승인과 관련해 황창규 이사는 “지난번 시설자금 기채 300억원까지 더해지면 기채만 6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기채 승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영배스님은 “상환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앞으로 상환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 불교병원 개원을 한 뒤 병원의 수지동향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단 원안대로 기채 승인을 통과 시킬 것을 동의했다.

또한 이사 장운스님을 각급기관 교원 및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하

고 이사인 해립스님을 새 징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는 장운스님이 징계위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 장운스님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위원회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밖에 △교육용 기본재산(경주 캠퍼스 부지 일부의 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용도변경 및 처분 △법인인사하 학교 교원인사를 승인했다.

한편 참석한 이사 스님들은 이사회를 마친후 불교병원 개원준비현황 브리핑을 받고 각 병동을 시찰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열사를 기리며 ... 지난달 15일 4·19기념 등반대회가 북한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3,20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은 등반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4·19탑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이다. 시상식은 4월 19일 다함관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전자공학과가 단체별 금상을 수상했고, 4인 1조팀에선 197팀이 수상했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다시 듣고싶은 명강의 공모전에 신청하세요”

교수학습개발센터 본격적인 사업 시작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연구·안 내하고 학습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박명희·가정교육학)가 학생선발실 옆으로 이전 후 지난 달 19일 개소식을 가졌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그동안 교육연구원 내 교수학습 개발부로 운영되다 지난 2월 행정조직개편 때 부속기관인 교수학습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이는 학 내·외에서 갈수록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 인 교수방법 및 학습법을 연구·개발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한 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다.

올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강의활동 보고서 워크샵=교수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단과대학 학생의 이해와 효율적인 교수법 워크샵=단과

대학 학생의 학업 성향과 요구사항 분석 △다시듣고 싶은 명강의 좋은 수업 에세이 공모 △강의클리닉 서비스=강의스타일에 적합한 교수법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강의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제3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 접수가 오는 13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캠퍼스내 사제시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기억에 남는 강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널리 알려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응모방법은 수강했던 강의(지난 학기 이전에 수강한 강의)중 동국인 모두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좋은 강의를 에세이 형태로 홈페이지나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김준교수, 한국과학재단 실시

특정기초연구개발사업선정

우리학교 김준(멀티미디어학)교수가 지난달 4일 한국과학재단에서 실시한 ‘2005년도 특정기초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물리적 모델링 합성방식을 이용한 국악 관악기의 가상악기 연구’로서 국악기를 컴퓨터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는 최신 연구방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08년까지 매년 8천만원씩 3년간 총 2억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봄 농활 5일부터 8일까지

전북 완주 이서면에서 진행

봄학기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야간 총학생회 6일부터 8일) 참가자 단과대는 △사범대 △정산대 △사과대 △문과대 △야간총학생회이다. 장소는 전북 완주 이서면이며 분반활동, 정세토론, 공동체 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봄 농활 신청 접수는 해당 단과대에서 가능하다.

모의토의 13일까지 접수

시험은 21일 해화관에서 실시

국제교육원(원장=김영민·영어영문학)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의시험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시험은 영어PASS제 대상자 및 일반모의토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해화관 1, 2층에서 실시된다.

응시료는 5천원이며 접수 시 반명함 사진 두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만 접수 가능하다.

건학 99주년 기념 법회 열려

정각원(원장=이진원)이 주최하는 건학 99주년 기념 법회가 오는 3일 오후 4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는 글로벌 시대와 동국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본교 정각원장이자 세계 불교도연맹이사 맡고 있는 진철 스님이 설법을 한다.

생활문화유적답사 참가자 모집

오는 4일까지 생협에서 신청 접수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은 오늘(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2기 생활문화유적답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생활문화유적답사는 우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학내 구성원간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서 생협이 전액 지원한다.

올해 선발된 생활문화유적답사

참가자들은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베트남 전쟁유적지 △호치민 박물관 △하노이 대학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선발은 학부생 4명, 대학원생 1명 총 5명을 모집하며 자격요건은 △동국대학교 생협에 1주 이상 출자한 조합원 △생협발전에 기여한 조합원이다.

학술문화연수 13일까지 접수

일본 삿바로학원대학으로 일주일간 파견

국제교류실(실장=김영민·영어영문학)에서는 ‘2005학년도 일본 삿바로학원대학 단기 학술문화연수’ 참가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학술문화연수 참가자는 학교에서 항공료를 일부 지원하며 오는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1주일동

안 삿바로학원대학을 탐방한다. 자격요건은 △현재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3~6학기 재학생 △영어회화가 가능 △본교측 연수 주관 시 홈스테이 제공이다.

신청서류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야 하며 재학 및 성적 증명서 각1부가 필요하다.

칭찬합시다

본사에서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연재한다.

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중앙도서관 김용갑 직원



하루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내 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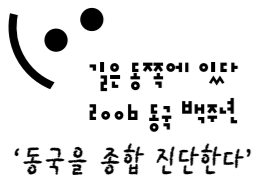
직원들 누구일까. 아마도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반납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일 것이다. 인터넷을 위해 찾아간 그날도 아침부터 여러 학생들을 만나느라 목이 다 쉬었다는 중앙도서관 대출·반납실 김용갑 직원.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멧찍은 웃음을 짓는 ‘칭찬합시다’의 여섯 번째 주인공 김용갑 직원을 만나 학생들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친절하고 고마운 직원으로 추천했는데.

= 추천해준 학생이 도서 대출 장애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난다. 그 후에도 마주치면 서로 인사도 나누곤 했는데 그러한 점이 인상에 남아 칭찬을 해준 것 같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종합기획 2. 교육분야 ② 교수임용



전임교원 확보율 달성 시급한 과제

교육의 질적 향상 위해 교원 임용방안 개선돼야

좋은 선생 아래 나쁜 제자 없다는 옛말이 있다. 이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수는 대학의 3주체 중 하나로서 대학 교육에서 무엇보다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훌륭한 교수를 임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사업에서도 전임교원확보를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교수임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우리학교 현 교수임용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전임교원확보율 달성은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정부의 대학지원사업에 채택되기 위한 필수적인 수반사항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전임교원확보율은 50.5%,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4.4명(2005학년도 1학기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목표 05년 일반대(연구중심)=55% 일반대(교육중심)=54.5%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수치를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힘들지만, 오는 2006년까지 전임교원확보율 55% 달성을 위해 최소 55명 이상의 교원을 확충할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폭적인 전임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마련돼야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꼭 훌륭한 교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임교원임용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전임교원 임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지는데, 정량평가는 학력, 경력, 연구업적 양적평가로 소속 학과 전임교원 전원이 참석하여 실시된다.

또한 정성평가로는 교수능력평가와 연구업적 질적평가가 실시되는데, 연구업적 질적평가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이 참석하는 교수능력평가와는 달리 외부 인사와 관련 세부전공 교수로 구성된 3인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평가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전임교원 후보자들이 복수추천

되고 총장, 해당 캠퍼스 부총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면접을 실시해 면접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게 된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평가하는 정량평가는 연구업적 평가가 연구기간에 상관없이 질보다 양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논문 편수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의 차이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기간을 고려한 논문 편수와 함께 논문 질에 따른 상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능력평가, 연구업적 질적평가로 구성된 정성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다 심각하다.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시급

교수능력평가는 대부분 학과에서 면접이나 공개강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과가 많고 평가 성격상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이 의

견에서 비롯된 교수간의 마찰로 전임교원이 선정되지 못하는 학과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과대 송희자 교수는 “복수추천 방식에 따르면 대부분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3명을 추천하는 것이 더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교원 임용 제도 변경으로 교수능력평가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예정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교수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교육부분, 바로 강의능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개강의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전임교원 채용방식의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다. 수시모집 제도화와 함께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별채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제간 연구가 적극 권장되고 있는 만큼 교수 채용도 학문간의 장벽을 허물고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신임 조의연(영어영문학) 학생처장 인터뷰

“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 취업 지원에 주력할 것”



- 지난 달 시작한 수요일음악회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 올해 학생처는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요일음악회는 앞으로 학생처가 추진할 사업들의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우리학교 캠퍼스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랑의 정신 릴레이’는 오는 5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 이번 행정조직개편으로 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산하에 진로교육상담팀

과 취업지원팀을 두고 있다.

모집 중에 있는 전문 상담원 2명이 확충되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청을 비롯해 영 어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 처음으로 영어인터뷰 준비 과정을 마련했다.

이미 10명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계기업 지방자들을 위해서 미리 미국 회사의 문화를 접해 보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강좌를 미국문화원과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과단위에서 재학생들에게 정보제공차원으로 지난 3년간 취업률, 졸업생들이 취업한 직종, 회사 등을 취합해 자료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취업지원사업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서 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

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6개 단과대 학생회가 학자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학생회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므로 교육환경과 관련된 요구안들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요구 사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학교는 앞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와 학생회가 만들었던 대결구도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지난 2월 대대적인 직제개편과 함께 인사이드이 있었다. 올해 각 부서 주요 업무 계획과 목표를 알아보고 새로 신설된 부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본사에서는 새로 취임한 처·실장과 부속기관장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사설

돌 속에서 나투시는 돌부처처럼

세세처처(世世處處)에 불성(佛性)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 말이 가장 실감나는 경우는 경전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돌부처를 바라볼 때이다. 위대한 석공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 돌은 불성을 안은 채 잠들어 있다. 수억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돌은 기다린다. 그러다가 어느 인연의 바람이 손길을 뻗어 부처를 모시고 나온다. 그게 돌부처이다. 돌부처는 조각이러기보다 잠든 불성의 현현이라는 점에서 ‘형상’이 아니라 ‘본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포착할 수 없다. 그것은 형상 저 너머에, 그 깊은 속에 고요히 있다. 지혜의 눈이 그것을 본다. 그리고 옹감하고 위대한 예술의 손길이 그 본성을 깎아내린다.

오늘 우리 동국의 정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의 눈과 위대한 예술의 손길이다. 건학 100주년을 코앞에 바라보고서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아직도 잠에서 깬 것 같지가 않다. 우리들 내부에 잠들어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불러내는 일이 이제는 시급하다. 5천년 불교문화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동양인문학의 학문전통, 현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등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갖추고 있는 돌 속의 불성이자 본성이다.

동대신문사가 건학 99주년에 즈음하여 벌이는 각종 기획은 비유컨대 돌 속에서 부처를 모셔내오는 과정이다. BUDP(Booming Up Dongguk Program)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의 일환이다. 그것은 마치 북을 두드려서 잠든 신명(神明)을 불러일으키는 고무(鼓舞) 연행과 비슷하다.

고무란 원래 ‘역경’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인간 개개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신명을 발음시키기 위한 세목 가운데 하나이다. 재계(齋戒)와 세심(洗心) 단계 뒤에 마련되는데, 셋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방편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와 세심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고무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소프트 파워이다.

BUDP는 돌 속에서 나투시는 돌부처처럼 잠든 동국정신을 일깨우고자 하는 문화기획이다. 북을 쳐서 소리를 내고 모두가 즐겁게 한마음으로 만나는 일은 무거운 자기안주와 정제된 의식을 타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같이 해보자는 마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는 게 반드시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아쉬우면 아쉬운대로,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이제는 동국 100년 전체를 위해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88올림픽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단결하여 잘 치러냈고 그 결과로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파격적으로 올라갔다. 건학 100주년 준비가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자랑스러운 동국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자. 돌 속에서 나투시는 돌부처처럼...

동국만평 정명근 mgngc@hanmail.net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제 43회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시조 : 2편 ~ 3편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응모 및 심사**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11일(토) 10시 30분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주어진 주제 작품을 작성하여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 시상**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선시에는 본교로 작품권이 귀속됩니다.
-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6% 면제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작품제출기간**

2005년 5월 2일 ~ 5월 21일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주의사항**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과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www.dgulit.com)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동대신문사 (02) 2260-3491

동불연꽃제
불기 2549년 동국 100년 야단법석

5/2 (보시 날)
10:40 식전행사 - 범고공연 (석림회)
10:50 설장구, 화관무(순재현 무용단)
11:00 일제식, 육법 공영(박광옥 외 14명)
12:00 다과회
12:30 동아제약 대중공연
14:00 아와수업(특강)
15:00 일사체합(김기호)
18:00 점대식
20:00 만해관 차보시(아간 학우들과 함께)

5/3 (경전 날)
11:00 관불의식 (불교학생회)
12:00 범고공연 (석림회)
13:00 1080배 (군승사관 후보생회)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한 정진기도 법회)
16:00 정각원 법회 (종정당)
18:00 저녁예불
20:00 만해관 차보시

5/4 (지혜 날)
11:00 사시예불 (석림회)
12:00 범고공연 (석림회)
14:00 요가 실수
15:00 불상성소 (보살 사상 연구회)
18:00 저녁예불 및 회향식
19:00 대동제~ 열수~

* 행사는 5월 2일~4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위 행사 일정은 폭우가 쏟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길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

차 한잔의 여유, 티벳 다류멘터리 및 영화상영, 단주만들기, 불상성소, 핸드폰을 보시, 녹차 세이브 보시, 서원지 달기, 낙산사 소설 사진전, 한지공예 만들기, 컵등 만들기, 관불의식(=관육의식), 불공용품 판매, 범고 공연, 1080배, 진시희 (장영등 연수, 불교 환경운동 전시, 사경 & 불교 그림 전시, 불교미술 전공 불화 전시)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도 연합
주최 : 석림회, 불교대 학생회,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학성회(= 동불), 군승사관 후보생회, 불교대 소모임 (군본불교 연구회, 보사연, 불담, 이관사관, 진진회)
도움주신 곳 : 동국대학교, 정각원, 체육교육과 (순재현 무용단), 동국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불공위원회, 전통등 연구회, 정토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동아계약(박카스) 박광옥 외 14명, 능인선원(김기호), 수원포교당, 한국계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준비 막바지

최첨단 의료시설 · 양한방 협진체제 구축 ... 6월 예비진료 시작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오는 6월 예비진료를 시작한다. 이는 그동안 불교병원 개원을 애타게 기다려온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분명 기쁜 소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국대학교 일산 불교병원 개원에 관한 구성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원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인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을 다녀왔다. 편집자

한 여름인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햇살이 뜨거웠던 4월 어느 날, 그동안 이름만 수없이 들어왔던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처음으로 직접 가 보았다.

병원 주위 도로 공사가 한창이라서 어수선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서인지 초현대식 건물인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더욱 눈에 띄었다. 100여개의 한방 병상을 포함해 총850 병상을 구비한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옥상 2층으로 지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병원 건축 설계에 불교적 의미가 부여됐다는 것이다. 총 4개 동인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중앙 지원동, 영인동은 불교의 사법인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주출입구에 위치한 8개의 열주기둥은 불교를 실천수행하는 팔정도라는 십팔계의 의미를 담아 시공하였다고 한다. 이만하면 불교종립대학 병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결실음이 아닐까.

아직 예비진료를 시작하기 전이라서 병원 내부에 환자들은 없었지만 분주하게 움직이

는 직원들로 인해 병원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활기가 넘쳤다. 병원 필요인력은 교원 59명, 직원 87명 등 총 209명이지만 발령 예정인원이 183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력채용은 60%정도 완료된 상태이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은 정식명칭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바로 동국대학교 병원+한방병원이다. 이는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의 특징인 진료팀제 운영을 통한 협진체제 및 양·한방 협진체제 구축을 잘 나타내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할 수 있는 전국 규모로서는 최초의 병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의무원장은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이 성공한 사례가 없지만, 우선 뇌졸중과 신경과 부분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은 △진료 전문성을 위한 전문센터 구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최신의료장비 및 기구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진료 전문성을 위한 전문센터인 소화기병센터, 심혈관센터, 퇴행성질환센터, 동서 의학진진센터 등을 통해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문서가 전혀 필요없는 완전전자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에서 필름이나 페이퍼를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심장을 활영해 내부 단면까지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64절편 컴퓨터 단층촬영장치와 같은 첨단의료 장비들도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의 자랑이다.

그러나 새로운 병원 진입도로 공사가 올 9월중에야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차장 확장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다. 따라서 정식 개원식은 오는 9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그 전 6월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제 오는 6월 예비진료를 시작하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은 그동안 개원과 관련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 과정에서 교비 전용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병원 회계와 학교 회계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총장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러한 부분에 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모든 동국 구성원들은 산통을 겪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동국 구성원들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의료진 소개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개원 일정

1994.12.28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 승인
1998.02.23	동국대학교 불교병원 건축 허가
1999.10.	착공식
1999.12.	건설본부 발족
2002.09.	준공식
2003.05.	개원추진본부 구성
2003.08.	건설본부, IHS(Intelligent Hospital System)추진위원회, 개원추진본부를 개원추진단으로 통합 발족
2005.06.	진료시작 예정
2005.09.	개원 예정



이석현 의무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원장
국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이명묵 기획조정실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태석기 대외협력실장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과장
대한전문관절학회 회장



민명일 소화기병센터장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병센터장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장



이원철 한방병원장
본교 부속 분당한방병원장
본교 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 겸임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 점검

구성원 참여 이끌어 낼 사업 마련 시급

올해로 우리학교는 건학 99주년을 맞는다. 많은 숫자를 거쳐 100이라는 숫자를 하나 남겨놓고 있다. 100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완전'과 '충족' 그리고 '극'을 나타내는 수이다. 이에 우리 학교는 100주년을 도약의 기반으로 '세계속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동국 발전의 안전과 충족을 다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사업은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대화합 등을 키워드로 잡고 있다. 이에 △건학이념 구현 △역사정립 △정책과제 건립 등 7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학이념 구현=건축기어 사찰방문, 전통등 전시회 및 불꽃축제, 기념법회 △역사정립=동대백년사 편찬, 교사자료 전시회, 자랑스러운 동국인 100명 선정 △건립=정문 진입로 직선화 사업, 타임캡슐봉안, 기념관 착공 △학술부분=DMZ생태 평화 국제학술대회 등 4개 대회 △편찬=건학 100주년 기념 편찬사업, 박물관도록 발간 △행사부분=동국비전선포식, 사이버 박물관 개관 △홍보=홍보영화 제작, 기념우표 발행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동국구성원들이 100주년을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현재 10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는 9월에 있을 비전 선포식 이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 물론 가시적인 행사가 좋은 사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부밍 업(booming up)' 시켜 동국구성원들의 많은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00주년에 대한 정확한 시기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재명(식품2) 군은 "곧 100주년이 되는 것은 알지만 내년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등 각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만한 창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각 구성원들의 참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0주년을 함께 준비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학교는 사업의 전반적인 키워드가 대화합인 만큼 우선 구성원들의 관심부터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모토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적인 사업 틀은 짜여졌지만 우리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예비동국인 혹은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우리 동국을 어필할지 아직 미정이다.

실제로 여러 대학들이 전통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젊은 감각으로 신입생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우리학교는 이전부터 불교적 이미지로 고착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학교의 전통을 느낄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느껴진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건학100주년 사업팀의 한 관계자는 "사업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는 내적으로 차분히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달 안에 우리학교의 전체적인 방향인 1차 비전이 발표되고 오는 9월에 각 부서들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00주년을 맞아 여러 대학에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도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100주년 발전기금'을 받고 있지만 재단전입금이 2%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기념사업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00주년 사업 준비에 법인이 예외가 아닌 만큼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는 100년만에 한번 오는 중요한 해이다. 우리학교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학내구성원 뿐만 아니라 법인 그리고 외부인까지 힘을 모아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우리학교만의 '모토'를 수립하는 것을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함께 웃을 때

동국은 힘차게 떠오릅니다

우리학교는 오는 8일 개교 99주년을 맞는다. 모든 구성원들이 내년의 '축제'로 진폭 부풀어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 힘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학생회와 운동부 그리고 특수직 직원 등 여러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이에 본사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담아보는 사진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글·사진=사진부



▲ 지난 2003년 전국체전 은메달의 주역인 우리학교 농구부원들. 지금은 비록 몸을 움추리고 있지만 내일은 우승을 향해 뛴다.

▶ 지금 우리학교 체육관은 과포화상태이다. 운동부원들의 연습 공간도 부족한데 교양수업까지 체육관에서 진행한다. 격렬한 운동 연습으로 다리를 다친 농구부원.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날도 오겠지

흐린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게
한밀천인데

짜짜하게 굴지말고
가슴을 짝퍼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동국화의 '사노라면' 중에



▼ 중앙도서관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주말임에도 빈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 동국의 안전은 우리에게 맡겨라(?). 발잡 설치며 늦은 시간까지 학교를 지키고 있는 경비아저씨.



▲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난 때문에 심그러운 불내음을 뒤로 하고 도서관을 찾는다. 만해관에서 전공서적을 보고 있는 학생.



▶ 총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한 지금, 그래도 각 단과대에서는 오는 5월에 맞춰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불교대 학생회에서 동불연꽃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다음 보궐선거에는 총학생회가 건설되길 기대해 본다.

▲ 동국 구성원은 이들이 있기에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웃으며 오늘도 깨끗한 동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학 연구소의 한 연구원. 그는 오늘도 학내·외 강의와 연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사장 개교기념 치사

화합하여 정진하는 세계 속의 동국대야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할때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공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승과 미래로의 전진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시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할때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공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승과 미래로의 전진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시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할때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공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승과 미래로의 전진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시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총장 개교기념 축사

건학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 내딛을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할때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공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승과 미래로의 전진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시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할때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공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승과 미래로의 전진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시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할때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공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승과 미래로의 전진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시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개교 99주년 기념 축사

직원대표 축사

동국 100년의 역사를 도약의 발판으로



동국가족과 함께 축하합니다. 백주년을 향해 달려온 우리 동국가족은 오는 5월 8일 99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직원 노동조합은 이런 의미 있는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어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턱으로 가리키고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동국이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위한 재충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기이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하는 깊은 우려가 됩니다.

요구하는 바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변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재단과 학교당국 또한 학교의 발전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재단 전입금과 같은 기본 역할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현재의 동국이 아닌 우리의 기대와 이상이 실현된 미래가 현실로 도래할 것입니다.

학생대표 축사

한마음으로 '재도약' 위해 정진해야



민족동국 일만이천 학우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사범대 학생회장 구본훈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어느덧 건학 9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 두고 있지만,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일만이천의 대표직인 총학생회는 건설되지 못하였고 또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조차 학교의 일방주의적 학사행정, 학교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건학 100주년의 상에 맞는 민족대학으로, 100주년이 동국대의 재도약이 되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고, 도와야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2005동국발전방향 설명회'는 동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이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국건학 100주년'을 발판으로 향후 100년의 동국을 발전적으로 설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우선 이렇듯 광범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과 장·단기적인 시행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를 조직했다.

동국 마스터플랜 교육, 연구·캠퍼스혁신분과위원회는 지금 ...

장기적 안목으로 실현 가능한 청사진 마련해야

이러한 위원회가 조직된지 이제 2개월이 지났다. 개교 99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이 위원회들은 현재 어떤 활동들을 진행중일까. ▲교육·연구혁신분과위원회 교육강화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장 이상 일(토목환경공학) 교무처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교수·직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것인가이다. 셋째는 현재 우리학교 특성화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고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의 미래상 설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인성·실력 등의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상했다. 이번엔 설립된 캠퍼스 혁신 분과는 유석천 기획처장, 김홍일 건축공학과 교수 등 17명의 자문위원, 책임 위원들로 구성돼 현재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캠퍼스 혁신 분과 위원들은 지난날 16일에 열린 마스터플랜 진행과정 1차 워크숍을 통해 △업그레이드 동국 프로그램 검토 △국내외 대학 캠퍼스 사례 △프로그램의 초기 검토와 시나리오 △환경친화적 에코 캠퍼스 등에 대한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로 하는 분과위원회와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 위원회, 외국 대학의 전문가들과 연계된 연구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자료 수집과 우수 대학들의 벤치마킹을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민간자금의 유치 등을 통한 캠퍼스 주변의 차별화된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AIDS 감염자 수 점점 증가 추세

지난해 기준 하루 약 1.7명 ... 성접촉·수혈 등 경로 통해

전세계적으로는 2004년 한해 동안 하루 평균 1만4천명씩 약 490여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 누적 감염자는 총 4천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2년간 에이즈 감염건수가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한해 국내 에이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새로 발생한 에이즈 감염자는 614명(하루 약 1.7명)으로 2003년의 534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2000년 219명,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중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된 434명은 모두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돼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누적 감염자는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3천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31명이 사망했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률은 성인 1만명당 2.03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류됐으나 동아시아 지역 여행자들이 성접촉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84 만명에

달해 인도에 이어 아시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발병 원자로 투병 중인 수는 대략 전체 감염자의 10%인 8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및 중국에서 에이즈 감염이 불건전한 성행위, 마약 주사 사용, 수혈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성문란 현상과 마약 범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 또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관 객원기자(경철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표1> 연도별 에이즈 감염인 보고 현황

연도	1985~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3
감염자수 (명)	41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4	141

<표2> 연도별 에이즈 감염인 사망보고

연도	1985~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3
사망자수 (명)	55	21	33	36	46	43	52	58	76	96	115	20

'이주의 학술 키워드' 는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결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코너입니다. 키워드 선정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AIDS란 무엇인가?

에이즈(AIDS)란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으로 1981년 세계의학협회(WMA)에 처음 보고된 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 하는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1형(HIV-1)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2형(HIV-2)이 있다.

바이러스와 면역체계

면역체계란 외부의 이물질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집합이다. 면역체계는 백혈구 세포가 몸 전체를 순회하다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이물질(세균, 병원균)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작동한다.

이들 백혈구 세포 중 어떤 것은 질병의 발병 원인을 직접적으로 잡아먹음으로써, 또 어떤 백혈구 세포는 인체 내로 침입하려는 발병원

인에 대응하여 항체를 만들으로써 인체를 방어한다. 인체내 T세포의 개수와 그 증감을 가지고 병의 상태를 나타낸다. T세포라는 용어는 면역계통에서 아주 일반화된 이름이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CD4(CD4+T-lymphocytes)라고 부른다.

AID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CD4의 세포를 공격하며, 이때 CD4 세포의 구조는 바이러스의 손쉬운 공격목표가 된다.

HIV가 CD4세포를 공격하고 나아가 CD4 세포를 새로운 HIV를 증식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한다. 결국에는 CD4세포가 HIV에 의해 죽게 된다.

HIV의 특성

에이즈(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이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손상되고,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치명적인 감염증이나 암을 일으켜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게 된다. HIV감염인(또는 양성반응인)이 에이즈환자로 진행되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년기에 있었던 감염의 재발과 같은 질병에 대해 인체 내에서 스스로 저항하고 통제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HIV에 감염되면 이러한 면역기능을 상실하여 질병으로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뇌와 기타 기관까지의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에이즈환자들이 운동이나 기억력,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에이즈 환자들의 사망원인은 단순히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점차 감소시켜 어떠한 질환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낼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인체 내에서는 치명적으로 작동하지만, HIV는 인체 밖에서는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한다. 미국질병관리예방기구(CDC)의 과학자들은 HIV가 존재하는 체액이라도, 말라있을 때에는 바이러스의 90~99%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IV는 인체 밖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한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 직접 침입하지 못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공기를 입에 의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감염경로 등 밝혀지지 않아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 지금처럼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극소수의 의견으로 HIV에 감염된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무증상으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면역기능이 완전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에 대해서 의학계는 이전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거나 단지 기적으로 치부하는 현실이다. (지금의 의학계와 다른 견해를 밝히는 단체에 대해서는 http://www.noaids.co.kr/ 참조)

중요한 일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고 HIV라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과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mon6909@dongguk.edu

내가 읽은 책 이야기



권승구

생명자원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 일깨워

가장 기억에 남는 읽은 책을 꼽으라 하면 단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 1'이라는 책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 신입생 시절 그것도 3월초 우연히 동아리 선배가 보던 책을 얻어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시 공부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던 세월,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이 진리의 전부인 것만 같았던 나에게는 이 책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배워 왔던 것과 이 책의 내용은 왜 다른가. 도대체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후 대학 시절 내내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해방전후사의 인식 1'이란 한편의 책이 이제 막 각광권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뒤늦게 읽었던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대해 성실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고자 했던 저자들의 노력 덕분에 별다른 노력 없이 해방전후의 역사와 분단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 비토소 눈을 뜰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자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싶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권승구 외 한필사

비록 그 당시에는 억압적 군사통치체제하에서 대학생의 의식화란 이유 때문에 판매금지까지 당했던 사연 많은 책이지만 대학생활을 막 시작하려던 시절에서 이 책이 준 감동은 그 때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가장 짜릿한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독도 및 교과서 왜곡문제에 의해 한·일간 또는 중·일간에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왜곡된 우리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불행하게도, 독립을 위해 목마친 선각자들이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린 우리의 잘못된 역사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다. 더구나 오늘날까지 여전히 왜곡된 정치, 경제문화를 유산으로 물려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는지.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대로 된 역사,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21세기 미래의 주인공 학생들에게 이 한편의 책이 좋은 교양 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오래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나와 같은 짜릿한 첫 경험을 이 한편의 책을 통해 느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감히 이 책을 권해 보고 싶다.

AIDS의 사회적 문제

성폭행범죄 · 환자 인권문제 등 발생

남아프리카 · 동남아 등 환자관리 시급 올바른 교육으로 일반인 의식 개선해야

에이즈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이래 인류학적·의학적·종교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사회적 문제이다.

에이즈로 인한 사회문제로는 첫째, 성폭행범죄의 증가이다. 작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생후 9개월된 갓난아기가 집단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성인 남자 6명으로 성경험이 없는 소녀와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가 완치된다는 허황된 속설을 믿고 이처럼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아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거리에 버려졌다. 생명은 건졌지만 HIV에 감염돼 채 살아보기도 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둘째, 에이즈 환자들의 집단성폭행은 일회성의 범죄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성인 남성의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소녀들은 매매춘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성인남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옮겨진다.

또한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들은 가정에서 이혼을 피하려 한다. 매년 7만~10만명에 이르는 남아공의 갓난아기들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에서 매주 5000명이 에이즈로 숨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처럼 보인다.

악순환은 계속된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갈 곳을 잃고 매음굴로 빠져들어 에이즈에 걸리고 에이즈를 옮긴다.

셋째,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문제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성인 1천51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의식 실태조

사를 벌인 결과 에이즈 환자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다.

식사를 할 수 없다는 38.8%, 모르겠다가 34.5%였다. 또 에이즈환자와 같은 방을 쓰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응답이 18.6%, 에이즈는 모기나 벌레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응답이 32.1%로 나오는 등 에이즈 감염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에이즈라면 혐오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응답은 73.2%, 에이즈 감염자는 성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56.9%였으며 에이즈환자를 법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48.7%가 나왔다.

에이즈 감염경로는 성관계, 수혈, 모자감염 등 크게 세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는 감염우려가 없는데도 에이즈 환자를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결혼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결혼기피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의 성행위에 대한 불안이 결혼을 단념시켜 버리는 것이다.

본래 남녀의 건전한 결혼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서로가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풍조는 그러한 순결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향해 왔지만, 그 결과 남녀의 성에 대한 질서가 문란해지고 에이즈가 유행하는 상황을 낳았다.

이러한 시대이므로 더욱더 결혼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남녀관계의 기본임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남학생의 60.4%가 애정없는 상대와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한편 남자의 혼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남자 대학생이 54%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군대를 다녀온 학생일수록 더욱 뚜렷해서 군대 다녀온 대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보다 22%나 높은 69.7%가 혼전순결이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이다. 유엔은 전세계에서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비용이 3년 후엔 연간 105억달러에 달하고 그 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는 선진국에서는 점차 관리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는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키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세를 더하고 있으며, 전세계 에이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국들이 최소한 연간 1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유엔은 또한 오는 2007년이면 이같은 비용이 연간 1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는 빈국들의 보건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계 에이즈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 중 45%는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며 미국은 지금까지 에이즈 세계기금 기부금중 25%를 부담하고 있으나 에이즈 운동가들은 미국이 약속한 5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470만명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를 보유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00만명의 환자에게 약품을 공급하는데만 연간 7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관 객원기자(경철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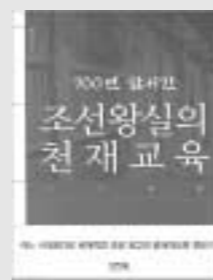
애들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미즈타니 오사무 지음, 김현희 옮김, 에이지21, 2005

13년간 밤거리를 배회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밤의 선생' 미즈타니 오사무. 도둑질, 약물중독, 양파, 폭주족, 폭력조직 가담... 이런 수렁에서 아이들을 끌어내 위로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계속하며 때론 위험도 당하고, 심지어 조직폭력배에 손가락을 하나 잃기도 했지만 그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첫머리에 나오는 '팬잖아, 팬잖아'

아, 팬잖아, 팬잖아...' 하는 그 대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제 일은 모두 팬잖아, 살아주지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점점 메마르고 삭막해져가는 요즘의 사계시간에서 따뜻한 진실로 마음을 적셔주는 감동의 도서.

"아이와 똑같은 눈높이로 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이상을 품어도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저자의 말 중에서)

사회과학실 소장. (371.4 수150김)



(700년 앞서간) 조선왕실의 천재교육 백승현 지음, 이지북, 2005

요즘 영재교육이 붐을 이루고 있다. 외국어, 수학, 각종 악기습득, 미술, 수영, 골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릴 때부터 각종 학원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의

달아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자들은 태종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시작되어 3세가 되면 정식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조선왕실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 예법, 왕세자의 보육, 음식, 정서교육 등 왕실의 천재교육법을 모두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조망할 수 있다.

자연과학실 소장. (649.155 백58주)

어린이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조선왕실까지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 지상현 지음, 해너우, 2005

인간이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원리와 명작으로 평가받는 거장들의 작품이 아름다움을 주는 까닭을 신경미학적으로 분석한 책. 명작은 과학적으로도 아름다움 이유가 있고, 인간은 두뇌활동에 따라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좌뇌는 긍정적인 상태를, 우뇌는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며 다른 사

람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기능은 우뇌에 집중되어 있다. 얼굴 표정처럼 비언어적 정보들은 주로 우뇌에서 처리한다. 저자는 피카소와 김홍도, 폴 세잔, 고흐의 그림과 모리 아키라의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통해 색채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미의식의 근원에는 사람의 뇌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느끼는 형식미가 있음을 규명한다.

자연과학실 소장. (701.17 지51L)

자료제공=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대한산악연맹 회장에 선임된 이인정 동문을 만나

“산악인으로서의 열정과 끈기로

진정한 산악문화 꽃피울 것”

대한산악연맹 회장, 주한 네팔 명예 영사, 연간 매출 15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 창업자. 화려한 전직만큼이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까 잔뜩 긴장하며 만난 이인정 동문은 그러한 걱정들을 처음 만나 선뜻 건네는 따뜻한 악수로 말끔히 녹여준다.

평생 '산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이인정이 곧 한국의 산악사'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이 동문. 그는 이번 대한산악연맹 회장 직 선임과 관련해 “그저 앞으로 산에 갈 시간이 줄어들어 아쉽다”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례적이게 산악인으로써 이러한 직함을 얻은 만큼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할 생각”이라는 포부 역시 잊지 않는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가던 그날(지난달 30일)도 중국 황산의 등산을 마치고 막 돌아와 등산복 차림에 수업도 꾸지 못한 진정한 '산 사나이'를 만나 산에 대한 그의 열정과 학교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학시절 학교 산악부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데.

= 어려서부터 산을 높이터 삼아 항상 산악을 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었다. 고 3때에는 동네에서 함께 산을 타면서 놀곤 했던 친구들과 함께 '인왕클럽'이라는 산악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산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대학에 들어와서도 자연스럽게 산악부에서 활동하게 됐고 졸업 후에도 졸업생들의 모임인 동국산악회에서 지속적으로 후배들과 인연을 쌓고 있다. 현재 후배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 산악부의 명예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의 명예를 떨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 대한산악연맹 창립 43년 만에 첫 산악인 출신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 지금까지 산악연맹 회장에는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이 추대돼 왔다. 따라서 이번 선출과 관련해서는 산악계에서도 일대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그 중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산을 등반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암벽도 타보는 등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박영석 동문에게 많은 후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영석은 산악부 20년 후배로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박영석이 산악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썩을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해외훈련에 직접 참가해 훈련을 돕는 등 많은 후원을 했다.

그런 만큼 박 군이 그랜드슬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같은 산악인이자 선배로서 지금의

한걸음, 한걸음이 그에게는 죽음의 사투와도 마찬가지로 말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영석이 산을 등반할 때마다 가슴에 동국대학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우리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선배로서 무엇보다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대학의 산악부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스타가 나올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동문들의 업적을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동상 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생각은.

= 현재 우리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총동창회가 내부적으로 단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따라서 하루 빨리 총동창회가 결집돼 학교나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한편 무엇보다도 대학의 발전은 학생, 교수의 노력에 있는 만큼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훌륭한 동문들을 생각하며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처음에는 여가로 시작했던 산행을 통해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것처럼, 후배들 역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면 그 부분에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 현재 여러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악인으로써 산행은 힘이 되게끔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시·도 지부 활성화와 해외교류 증진을 위한 산악관계 심포지엄의 국내 개최와 스포츠 클라이밍을 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또한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중에 있다. 60이 넘는 나이이지만 나의 평생 터전인 산에 대한 꿈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지는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문정희 동문 불교문학상 수상



우리학교 석좌교수인 시인 문정희 동문(국문 70쵸)이 지난달 30일에 불교현대문학관에서 진행된 제1회 불교문학상 시상식에서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문정희 동문의 시집 '양귀비꽃 머리에 꽃고'에 실린 '돌아가는 길'의 3편이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문 동문은 "앞으로도 창작을 위해 더욱 노력해 여러 우수한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신임 회장에

유인완 동문 선출돼



우리학교 유인완(경영 38) 동문이 지난 12일에 열린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에서 제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유인완 동문은 한일은행 동경지점장과 서울증권 전무이사, 한일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현재는 한국캐피탈에서 재직 중이며 이 곳에서 외환위기 이후 여신금융사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수익원 다변화로 건전성을 크게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현·전병주 군 광고대상 수상



우리학교 김정현(기계2) 군과 전병주(신방3) 학생이 이스트팩 주최로 열린 '제1회 광고대상'에서 비디오광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수동정

김지용 교수 미디어포럼 회장에



우리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김지용 겸임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포럼 정기총회에서 제 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지용 교수는 우리학교 언론정보대학원 1기 출신으로 서울 신문 기자와 편집부장, 문화일보 편집부장을 지냈으며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호(1402호 3월 14일자) 동대신문 7면 교수동정 중 화학과 유국현 교수의 사진이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박영석 동문, 세계 최초 산악그랜드슬램 달성하기까지

진정한 동국의 클라이머, 꿈의 도전을 '기록'으로

한 산악인으로서의 열정과 꿈을 키워가던 박 동문은 선배 산악인들의 지도 하에 각종 국내, 해외 훈련에 참가했다.

그러던 중 1989년 26세의 나이로 겨울 히말라야 랑탕리(7025m) 원정 성공에서 원정대장을 맡아, 동계 랑탕리 세계 최초 등정이란 위업과 함께 최연소 원정대장이라는 명예도 함께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그의 꿈을 향한 열정은 쉽게 꺾일 줄 몰랐다. 1993년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이어 97년 한해 동안 히말라야 8000m 고봉 5개를 등반하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박 동문은 점차 산악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클라이머', '진정한 고산등반가'로 주목받으며 한국 최고의 고산등반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박영석 동문은 2001년에는 로체(8516m), K2(8611m) 등반에 성공하여 8000m급 최고봉인 히말라야 14좌를 완승하였으며, 2002년에는 남극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4897m)를 정복해 산악그랜드슬램을 향한 힘찬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이 항상 기쁨의 결과로만 끝났던 것은 아니다. 산악 인생을 시작한 이후 성공가도만을 달리던 그에게 쓰러린 좌절을 경험하게 해준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2월 산악그랜드슬램을 목표로 도전한 북극점 원정에서 악천후로 인한 이상한과

와 부상 등으로 인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떠난 2003년 10월 남극점 등반에서 성공해 남극점 무지개 탐험 최단시간 세계 신기록이라는 명예를 추가했다.

그런 그가 지난 3월 9일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꿈의 '도전'을 마침내 54일만에 꿈의 '기록'으로 바꾸어 놓는 것만을 북극점에 꽂았다.

이번 박 동문의 쾌거는 그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의 사투와도 같은 등정 때마다 가슴 한편에 함께 했던 우리 '동국대'의 쾌거이기도 한 점에서 100주년을 위한 큰 선물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지는 기자 bob83@dongguk.edu

봄 어학특강 안내

Table with columns for English Discoveries (기초 영어회화), 중국어, and English Discoveries (기초 영어회화). Rows include course detail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 ◆ 혜택 1. 100%출석자 다음차수(여름1차) 특강 10%할인
2. 원어민 영어강좌 2과목 동시수강 시 만원할인
3. 2005-봄 한국어교육과정 Conversation Partner 원어민 영어강좌 10%할인
4. 2005-봄 한국어교육과정 수강자(외국인) 원어민 영어강좌 50%할인
◆ 기타 1. 동국대 재학생 외 외부수강생은 수강료 1만원 추가

Center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스승의 날 기념 제3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 "좋은 강의 추천하고 장학금도 타고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강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3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캠퍼스내 사제시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기여에 남는 강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널리 알려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 응모방법: 1. 수강했던 강의중 동국인 모두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좋은 강의를 예제이 형태로 접수(사이버 강좌 제외)
2. 지난 학기 이전에 수강한 강의를 대상으로 공모(현재 수강중인 강의 제외)
선정기준: 1. 강의 주제, 강의자료 준비, 과제 평가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2. 교수 학생 상호 작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3. 학습의 양과 질의 향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위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수상자 선정시 단과대학별로 고려함)

- 원고분량: A4용지 2매 내외(글자Size 12)
자 격: 1. 서울 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 수강년도,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핸드폰 기재요망)
2. 응모시 원고에 강의명, 강의교수명, 수강년도,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핸드폰 기재요망)
접수기간: 4월 25일(월) ~ 5월 13일(금)
접수방법: 1. 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공지사항중 제3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예제이 공모 신청 click
2. 방문 접수(본관 3층 교무처 옆 교수학습개발센터)
장 학 금: 개인별 20만원(11명)
선정자 발표: 1. 5월 22일(월)학교 홈페이지 공고
2. 시상식 및 간담회 일정은 추후 통보
행사문의: 교수학습 개발센터 ☎ 2260 - 8811-4(windy@dongguk.edu)

주 최: 교수학습 개발센터 후 원: 학생처

제1회 농산어촌 체험 박람회

농어촌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WTO무역개방 논리에 따라 시작된 저가의 수입 농산물 유입 등은 우리 농어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도시민들이 자기 삶에 바빠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새 우리의 논과 밭은 점점 주인없이 버려져갔고, 무분별한 개발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제1회 농산어촌체험박람회 - 2005도·농교류 페스티벌'이 열렸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서울 강남 한복판에 400여평 규모의 전복 고창 보리밭이 옮겨져 왔으며, 아스팔트만을 걷는 아이들이 맨발로 흙을 밟으며 휴장난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시장 야외에서 직접 담가보는 순창고추장, 인절미·두부·막국수 만들기, 승마체험 등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문화·정보 어우러져

농립부가 주최하고 도·농교류센터가 주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도시에서만 살아 농어촌을 경험하기 힘든 도시민들에게 잊혀져가는 농어촌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

함으로써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제1전시관에는 전국 50여개 마을이 참가해 각자의 특성을 살려 간이 마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이벤트를 활용해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제2전시관에는 이 행사와 함께 '제15회 우리꽃 박람회'가 열려 한국의 자생식물이 전시됐다. 제3전시관에는 농산어촌의 정보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됐다.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 '부래미 마을'에서 온 유준희(24) 군은 "도자기공예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마을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통연희극 △마술공연 △임격정공연 △도전! 고향사랑 골든벨 등의 공연을 통해 관람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행사 셋째날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교류 촉진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도 개최됐다.

도시 속 농촌을 반기는 사람들

서울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이러한 행사에 관람

객들도 즐거운 표정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농어촌 체험을 해주기 위해 가족단위의 관람이 많았다. 행사장을 둘러본 찬희(6) 가족은 "이번 행사에서 접한 정보를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 직접 농촌을 체험하러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람회 개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대학생들도 많다. 환경대학교 1학년 재학생인 이보미(21) 양은 "전시회를 본 뒤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과제 때문에 왔다"며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꾸러진 것 같아 재미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유미(삼육대 환경디자인과) 양은 "서울에서 한국의 자생화를 접하기 힘들데 이러한 행사 덕분에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숙한 점 개선 모색해야

그러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먼저 행사를 너무 크게 개최하다보니 이곳 저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연이나 이벤트가 많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게다가 유료체험이 많아 관람객의 부담을 자아냈고, 체험 또한 명목상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아이와 함께 관람을 온 이계영(서울 일원동) 씨는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생각보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아직은 각자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한 이들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온 장승조각가 김종홍 씨는 농어촌 체험박람회에도 불구하고 행사부스가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자아낸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다른 부스들과는 차별적으로 원두막 옆에 직접 짚은 장승을 여럿 세워놓고 새끼줄을 묶어놓아,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요즘 농촌 사람들은 힘들어한다. 산촌, 어촌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의 어려움에 허덕인다. 산더미만큼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생활의 터전인 논과 밭,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러한 행사의 개최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유지해가느냐, 얼마나 더 많은 농어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느냐는 남은 숙제이다. 다음해에는 보다 더 농어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젊은 영화인들의 작지만 큰 축제

일반인 참여 부족 아쉬워

'관객 1천만명 돌파'라는 말이 더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한국 영화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흥행만을 위한 대중영화는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비슷한 스토리 구성과 천편일률적인 캐릭터, 등장인물들의 관계 등을 설정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영화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우리를 자못 씁쓸하게 만든다.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 '작은영화제'는 이같은 우리의 걱정을 한결 덜게끔 한다. 자기만의 순수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담아 개성있는 실험을 시도한 젊은 영화인들의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2005 동국대학교 작은영화제'는 우리학교 영화·영상학과 학

생들이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과제 등을 위해 직접 제작한 영화들을 한 데 모아 상영하는 행사이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해보다 13편이 더 많은 총 28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영화 주제나 촬영 등에 있어서도 더욱 실험적인 영화들이 많았다는 평가다. 영화제 기획팀장 김용성(영화3) 군은 "촬영·음향 등 기술부분을 배우는 학생보다 연출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작품도 많아진 것 같다"며 이번 영화제의 특징으로 "기존에는 영화문법에 맞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틀을 깬 작품이 많고, 장르의 폭도 넓어지는 등 많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나 일반관객들의 '작은영화제' 관람이 부족한 것은 여전히 문

제점으로 지적된다. 예술극장 좌석의 대부분을 관련 전공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군도 "우리 학과만의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한다. 타 학과의 학생·교수·직원 등의 영화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곧 영화제의 발전과 지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홍신선 예술대학장은 영화제 축사에서 "작은영화제에는 예술적 감수성이 가장 날카롭고 뛰어난 젊은 영화인들의 순수한 생각과 느낌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느 것보다 '큰 영화'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상업성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영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뚝뚝 뚫린 우리 학교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학내 문화행사로 유지되길 바란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매체비평

도서평

오후 네시

자아의 본질과 소통에 대한 질문 던져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나른한 오후 네시.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이다. "네가 오후 네시에 온다면, 난 세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거야". 어린왕자의 여우에게 네시는 떨림과 기대의 시

간이지만 아멜리 노통브의 오후 네시는 고통이 시작되는 시간일 뿐이다. 예순 다섯의 나이에 정년퇴직을 한 에밀과 쥘리에트 부부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위해 속세를 벗어나 외딴 시골에서 '우리집'을 발견한다. 노부부가 정착한지 일주일인 지난 날 오후 네시경, 베르나르망이란 이웃이 방문을 하고 눈치없는 이웃은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현관문을 두드린다. 4시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은 묻는 말에 '그렇소'와 '아니오'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고, 그저 커피한잔을 마시고 떠난다. 무엇이 문

제냐고? 베르나르망은 뻔뻔하고도 심술궂은 태도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매일 에밀의 집을 방문한다. 정확하게 오후 네시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 나의 소중한 시간이 파괴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특히나 언제나 같은 시간 찾아오는 것은 미리 예고된 공포나 다름없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현실과는 달리 에밀은 그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을 보여 주며, 끝내는 또 하나의 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도는 '적의 화장법'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주인공을 숨막히게 만드는 타인이 등장하고, 주인공은 타인과 대립하다 점점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치부를 너무나 잘 깎아내리는 아멜리 노통브는 피해를 입는 주인공을 가엽게 여기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과연 누가 가해자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게끔 한다. 작가는 자아의 본질과 소통의 단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유희자적 사라져 버린 것. 나는 구원질나는 인간의 이중성을 무자정 내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감히 타인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군가 매일 오후 네시, 당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김 선 아
프리랜서 방송작가

보리소

봄의 생기(生氣)

해마다 봄이 되면 가슴속에 나타나는 생기를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번거로운 주변의 일을 잠깐 쉬어 내려놓고 푸근하게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봄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보자. 자연의 베풀은 실로 너무도 크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겨울 눈으로 차갑게 얼어있었던 남산의 나무와 꽃들... 우리는 그것들에게 물 한 방울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는데 그것들은 봄의 기운을 담아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향기를 주고 있다. 무정(無情)이 설법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만큼 강인한 인내를 뚫고 부드럽고 연약한 잎을 통해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무정이 설법을 하든 유정이 설법을 하든 그것은 '들을 수 있는 자'의 몫이다. 가만히 반조해 보자.

벚꽃과 진달래의 꽃잎을 한번 만져보라. 얼마나 가냘프고 얇은가. 그러나 그 작은 나무에 담긴 굳은 자생력(自生力). 그 자생력이 스스로를 존재시키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듯 큰 베풀을 주고 있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 그보다 더 큰 스승이 있음을 느낀다. 무정의 설법을 통해 스스로를 관조해 볼 때, 과연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자생력은 무엇인가. 어떠한 자생력이 있어 나의 삶에 생기를 일으키고 있는가. 가끔 조용히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충분히 잠재해 있으며,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정의 로움에 따라 움직이는 한 언젠가 반드시 실현되기 마련이다. 바로 자신의 자생력을 어떻게 끌어내어 내 삶에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등명(自燈明)'의 유혹을 새삼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된다.

봄의 생기... 내안의 생기처(生氣處)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내 영혼의 맑음을 위해 다시금 노력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종호스님 불교대 선학과 교수

특별기고

어른 관점에서 본 아동교육 심각히 고민해 봐야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온 것 같다.

많은 교사들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불가피한 교육적 방안을 봉쇄한 지나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아동들의 인권을 진지하게 거론한 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고민 뒤에는 그동안 아동에 대한 우리 성인의 다양한 관점의 변화 양상이 숨어있다.



조상식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프랑스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는 '아동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절대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아동에 대한 우리 성인의 근대적인 관점이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아동관의 변화는, 아동을 단순히 가족 노동력의 일원으로 파악하는 전근대적인 아동관으로부터 아동을 천사나 지상의 공주로 묘사하는 관점으로서의 은밀하고도 전면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은 후, 이제 아동은 성인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일시적인 잘못을 용서받는 책임유예(모라토리움)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것으로 아동기란 성인이 교육을 집약적으로 행사하는 '특별한 인생시기'라는 근대교육의 본래 모습이 확립된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성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아동의 '본래 모습'이 성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재단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에 이른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은, 바로 루소가 18세기 말 품고 있던 문제의식이다.

그는 '아동의 현재를 성인의 미래에 희생시키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아동의 자연적인 성장에 기초한 인격적 존중을 주장하였다. 루소의 지적은 이미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들에 베푸는 교육이 일종의 강제와 권력관계에 놓여 있음을 폭로한 셈이다.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현대 교육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21세기 벽두 한국, 아동의 자기결정과 존엄성을 부각시키는 담론이 본격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적 불가피성'이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일기장 검사를 하는 교사 및 학부모의 시선과 자신의 사적 영역을 '싸이월드' 공간으로 은닉시키는 아동들 사이에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성인이 독점해 왔던 교육행위의 정당성에 위기가 닥친 것이다. 오늘날 아동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자기세계'를 바라보는 성인의 '눈'은 수세에 몰려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성인들이 그동안 실천해온 교육행위에 대해 스스로 심각히 고민해야 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김기삼, 편집인: 김주상, 부편집인: 김주상, 편집장: 김주상, 발행처: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지난 주말에는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를 뵈고 왔다. 행사가 있어서 나선 길이였지만 제사보다는 잣밥에 관심이 많다고, 행사보다는 봄나들이 같은 설렘이 게으른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외할머니를 찾아간 주된 목적은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나는 4대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갖고 싶었다. 우연이었지만 외할머니-친정엄마-나-내 딸은 모두 장녀다. 그러니까 모두들 첫 자녀가 딸인 셈이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외할머니와 이제 환갑을 맞이할 엄마, 마흔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나, 불안한 사춘기를 직면해야 하는 내 딸은 부처지는 햇살 아래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김치'하고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사진을 보면서 새삼 가족이 시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네 여자는 서로 한 가족이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결혼한 나이가 다르고, 출산한 자녀 수가 다르며, 무엇보다 자녀양육기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단지 여성의 삶의 차이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았다.

전통적 쉼터의 가족

지금의 가족은 그 외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들은 가족 안에서 사랑, 단란함, 친밀감, 질은 유대 등을 꿈꾼다. 학생들에게 가족을 정의해보라고 하면 가족에 대한 이러한 소망은 분홍색 하트, 울타리, 쉼터, 식탁같은 모습으로 기호화된다.

그러나 가족을 지금처럼 따뜻한 공간으로



부천영화제 맞선 '리얼판타' 개최 지자체 의식 개선돼야

올해 첫선을 보이는 '리얼판타스틱영화제 2005'(이하 리얼판타)가 오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부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 서울아트시네마(구 허리우드극장)에서 개최된다. 흥미로운 것은 리얼판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세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부천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일방적인 해촉과 교체된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부천영화제 사태로 불리운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 위원들로부터 구성된 이사회에서 영화제의 주요 안건이 처리되어 온 일방적인 소통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영화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영화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함께 지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화제는 어느 한 개인 혹은 집단이 아닌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모습이 만들어지고 또 바뀔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홍준 해촉사건이 아니라 부천영화제 탈취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노력하겠다는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직에서 쫓겨난 그는 집행위원장 없이 처리지게 될 이번 '가짜' 부천영화제에 맞서 '진짜' 판타스

틱영화제를 준비하며 관객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형수(사과대 사회4)

증가하는 비정규직 정부 개악안 시정돼야

현재 노동법에서 비정규직이 전체 1300만 노동자 중에서 800만을 차지했다고 한다. IMF시대 정부가 노동법을 바꾼 결과이다.

당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노동 시장의 유연화, 즉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사용자들은 경제사정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 채용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였다.

사용자들이나 정부가 그간 즐기게 이어

그리고 '가정의 달'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어린이날'은 부모나 가족이 없는 어린이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는 기념일이 됐고, '어버이날'은 많은 주부들이 5월을 싫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 현재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은 처음의 본질과는 사뭇 다른 것이 됐다.

특히 얼마 전 대한가족보건의학회가 제시한 '1·2·3 운동'(결혼 뒤 1년 이내에 임신율 해서 2명의 자녀를 30대 이전에 낳아 잘 기르자'는 운동)을 접하면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60년대 '3·3·35운동(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전에 낳자는 운동)'이 저절로 떠오르면서, 지금의 가족문제를 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느껴진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생활의 달성 여부는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토대와 구조가 있어야 한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일상의 우리들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가족적 경험에 근거하기에 '운동'이나 '선언', 달력적인 작은 글씨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광고 속의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준 아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중한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란 아이들이나 아빠, 다시 말해 혈연·결혼의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과 아빠 둘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 가운데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재배포 : dgupress@dongguk.edu

e-열린글터 대학의 다양성과 국가보안법

얼마 전 한 MT에서의 일이었다. 먼 술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대해 대화하고 있었다. 대개는 아니었지만, 한 학우는 법 존속을 말하며, 그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간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간첩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아니다. 형법에는 간첩죄를 처벌할 조항(제98조)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언젠가 MBC 'PD수첩'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아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은 어머니의 얘기를 보았다. 화면 속 그녀는 시골에서 고추를 팔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도 모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사람은 아닌 듯 했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처벌된 듯 하다. 그 조항 단서에 '본법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구성요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것을 또한 죄로서 인식한다고 해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당국에 고지하겠는가. 규정이 단서를 감안한다면 규정을 위반한 어머니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녀는 기대불가능성이론에 따라 책임이 없으므로 마땅히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형면제 판결도 아니라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녀는 처벌되었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법이 존재한다.

과거 이 법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사건이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불고지했을 때라고 가정한다면 처벌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성 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의 죄의 고지를 강요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녀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결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를 넘어서 그것의 완성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이중인격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강요받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그 이하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대학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 여러 학문, 예술, 스포츠, 또 어떤 사람은 학생운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생회 일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일들이 대학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러한 다양성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성숙한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불명확하고 폭 넓은 범위의 구성요건을 지닌 법, 결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강요하고 때로는 자신의 인격가치를 허물어 버리게 하는 그 법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 다양성의 대학 안에 있다. 얼골 화끈할 정도로 부끄러운데 그것은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이 살기 위해 사회를 흡혈하는 거대한 거머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다양성은 아무 것도 아니다.

배광수(사과대 북한3)

논단

전미경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가족의 소중함' 누구를 향한 목소리여야 하는가

부르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경우 불과 8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과 연계하여 상상하면서 '가정의 달'로 삼은 기원의 하나는 방정환 선생이 속한 천도교 소년회가 1923년 5월 첫째 날을 '어린이 날'로 제정한 그 즈음부터가 아닐까 한다. 당시 지식인들은 전통적 가족의 단점을 거론하면서 '행복과 사랑이 가득 찬 평화한 가정' 즉 '쉬잇홈(sweet home)'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가족은 가장 편안한 쉼터이면서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아니 돼야 했다. 사실, 가족이 개인에게 주는 힘은 실로 크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가족 공간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토대가 되며, 가족이 주는 지지적 격려는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북돋을 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자원이 된다.

증가하는 가족문제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소중한 곳이지만, 둘러보면 물리적·언어적으로 가장 폭력적인 집단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사례 또한 넘쳐난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때 맞는 아내의 숨죽인 공포는 여전하며, 부모에 의해 학대되는 어린이는 죽고 나서야 그 처참함이 폭로된다. 집 밖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는 상당부분 부모의 유기나 지나친 집착에 있다. 누가 이들에게 5월은 가정의 달임을 상기시킬 수 있겠는가.

개인에게 가족이 소중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지금 가족의 중요함을 일깨우기 위해 5월 초에 포진돼 있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금주의 식단

Table with 3 columns: 등국관, 상록원, 교직원. Rows list various food items and their quantities for different groups.

금주의 추천메뉴

산채비빔밥 (교직원 화요일 석식)

스님들이 산나물을 뜯어다 옛날부터 드시던 것이 산채비빔밥이다. 사람의 혈류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나물을 푸짐하고 다양하게 넣어 향토적 입맛에 맞게 준비했다.

안순실 (상록원식당 영양사)

달하나 천강에



이창환
정보산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어릴적 교실급훈이나 가훈 등에서 보면 "착하게 살자"(be nice) 혹은 비슷한 내용들이 몇몇은 북극곰로 액자에 적혀 있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악당들은 마지막에 망하고 착한 주인공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세상은 꼭 그렇게 착하게 움직이는가. 세상이 꼭 도덕선생님의 고리타분한 말씀같이 착한 자가 항상 승리하는가. 학생들은

한번쯤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면 착한 사람들은 항상 당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착한 것하고는 아예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변칙거리며 살고 있는 것도 자주 보인다. 이긴 참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 의문이자 중요한 문제이다. 도덕 선생님이 엉터리 급훈을 써주셨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도 일부 알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재미있는 모의 실험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시간 대학의 악셀로드 교수는 사람의 행동패턴을 크게 협동과 배신으로 구분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의 행동전략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서 "항상 배신하라", "항상 협동하라", "이런 경우에는 배신하고 이런 경우에는 협동하라" 등. 그리고 이들 전략간의 다양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어떠한 전략이 인간의 생존에 가장 유리한지를 실험해 보았다.

그 실험의 결과 언뜻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용하고 배반하는 전략이 제일 유리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비겁한 전략들은 예외없이 거의 꼴찌 그룹에 모여 있고 선량한 전략들이 우승 그룹에 모여 있음을 발견한다. 그중에서도 거의 모든 경우에 우승 주위를 떠나지 않는 전략은 토론대 대학의 심리학자 라포포트 교수가 제안한 TIT-FOR-TAT 라는 전략이다.

이는 "상대를 첫 번 만날때 우선 협동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가 나에게 한대로 한다." 라는 아주 간단한 행동전략이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수많은 다른 전략들과 섞여서 치열하게 세상을 살지만 이 모든 다양한 생활의 환경에서 대부분 경우에 최고 혹은 최고 근처로 잘 살게 되는 전략이 TIT-FOR-TAT 전략임을 위 실험은 보여주었다. 다른 역악하고 복잡한 전략들이 처음에 몇 번의 재미를 볼까하고 이 전략에 대해서 장난을 치다가도 곧 패배하게 되어서 싹싹 빌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전략대로만 하면 세상에 별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 전략의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단하게 행동하라. 행동할 때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중요한 몇가지 원칙에만 충실하라. 둘째, 선량하라. 기본적으로 남을 돕고 착하게 행동하는 전략이 긴 안목에서 승리한다. 셋째, 반칙에는 도발하라. 상대의 선의에는 협동하지만 불의와 반칙에는 응징하라. 넷째, 용서하라. 상대가 실수했다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용서하라.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전략이 다른 전략들을 물리치고 제일 잘 살게 됨을 실험은 보여준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도덕 시간에 귀가 따갑게 들던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행동전략이다.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리고 보니 이 글의 처음에 얘기한 "BE NICE" 라는 글은 액자에 감춰있는 도덕 선생님 문자가 아니고 액자를 뒤흔쳐나와 과학의 영역에서 숨쉬는, 여러분이 잘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독자 사진첩



지난 1일 광화문 등에서 열린 115주년 노동자 대회에 죽음보다 처절하게... 서 참가한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외치고 있다. - 정기훈(정보관리 05졸)

메아리

망자의 지혜

▲ '간어제초' 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전국시대에 강국이었던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약한 등나라가 있었고 등나라가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오랫동안 모진 고초를 당했던 것을 두고 이른 말이다.

▲ 망자가 등나라에 갔을 때, 등문공이 망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로, 제나라 초나라 사이에 끼여 있으니 제

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학교가 연루돼 있는 사건은 지난해부터 수사가 진행돼 온 것으로 순전히 이번 불꽃 사태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이럴 때일수록 우리학교는 망자가 말했듯이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단합해서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뭉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단한 금붙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학내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발전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헤아린다면, 구성원들간의 합의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지희 대학부장
gazababo@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문

문 정 희

오늘은 맑은 날, 아무 의미 없어 거울 같은 날
종이에다 시 대신 노란 달을 그린다 (중략)
당신이 나를 문(Moon)이라 불러주므로 달은 나의 문패,
나는 문(文)이요, 문(moon)이 되어 그리움으로 동실 떠오른다

가등이 되어 세상의 슬픔들을 속속들이 비추고
차라리 흥동이 되어도 좋지 사랑 찾아 거리를 서성이는 외롭고 가난한 그대들이 무상으로 그 문(門)을 열어도 좋지
-시집 '양귀비꽃 머리엔 꽃' (2004년) (민음사)에서

어느 날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이 지루해진다. 시에게 정적을 안겨주지 못하고, 과장과 미화, 아니면 허공만 떠는 시가 지겨워진다. 밤낮 꽃이나 새나 산만 노래하는 시가 진질머리 난다. 삶의 희로애락조차 귀찮아져서 종이에다 시 대신에 노란 달을 그린다. 왜 달을 그리고 '문'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첫째 이유는 시인의 성씨가 문(Moon)이고, 둘째는 시인이 시를 쓰는 문(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의 제목을 '달'이라고 하지 않고, '문'이라고 한 것은, 동음이의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시인의 특기인 말장난(언어유희, pun)을 하기 위함이다. 언어유희는 기지가 풍부하고 여조가 날카로우며 성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외연이 풍부해져 가능해진다.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위의 첫째, 둘째 '문'처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실상 시인이 달을 그리고 문이라고 제목을 붙인 근본 이유는, 셋째 '문' (소문자 moon)과 넷째 '문' (문)이다. 달(moon), 곧 시인은 가등이 되어 세상의 슬픔들을 속속들이 비추주고, 외롭고 가난한 그대들(우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눠 주고 싶어한다. 차라리 흥동이 아닌 흥동이 라도 걸어놓고 거리를 헤매는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사랑의 '문(門)'을 열어 주겠다고 말한다. 신화 속에 나오는 달의 신비한 에로스적 욕망 때문이었든, 인간의 원초적 본능 때문이었든 상관없다. 그 어떤 포스트 페미니즘으로 이만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문 시인의 지겨워진 삶이 이 정도인데,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강 상 윤

시인 ·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 지난해 동대신문을 읽고 ■

학내문제 해결방안 강구노력 전공부실화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해

지난 호 동대신문을 살펴보면 우선 동대신문이 학내사안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 보도면과 기획 취재면을 통해 연속 시리즈로 지면화되고 있는 학내 각 분야에 대한 기획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국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공부실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실제 기업 인사담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복수 전공에서 전공부실화의 문제점을 찾은 것 역시 적절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학술면의 배아세포에 관한 기사와 문화면의 재생의 땅 난지도에 가다 역시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다만 난지도에 관한 기사의 경우 그동안 많은 매체에서 다뤄진 만큼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러나 동대신문 창간기념 특집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동대신문을 몇 년간 구독해온 독자로서 일단 창간기념호 특집이 예년만 못하다고 느껴졌다. 일단 학내인론사 대표자들이 모인 대담이라면 내용이 대학언론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닌 동국대 내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야 한다고 보이며 설문조사 방법의 타당성도 매우 부족했다고 보인다.

그 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논조에 대한 기자들의 고민을 기대해본다.

박윤아(사과대 신변모)

2005학년도 본교 파견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계획

- 1. 파견기간: 2005. 9. ~ 2006. 8. (1년)
- 2. 교류대학 및 선발인원

국 가	교류대학	선발인원	비 고
미 국	미시간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	5	경영학 전공 신청 · 수강 불가
	노던주립대학 (Northern State Univ.)	10	

3. 지원자격

- 가. 현재 학부과정 3~5학기 재학생
- 나.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소정의 어학능력인증 취득자
- (1) MSU : TOEFL 550점(CBT 213점) 이상 취득자 2) NSU : TOEFL 500점(CBT 173점) 이상 취득자
- * 해외파견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지원이 불가함.

4. 파견조건

- 가. 본교측
-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유지해야 하며,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대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6%를 장학금으로 지급(김비환).
- 2) 파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 · 학점 · 성적은 교류대학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수구분 등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소속학과 교수와의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함.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 나. 교류대학측

교류대학	경비부담 (per semester)	비 고
미시간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	· 수업료: 본인부담 (\$3,750) · 체재비: 본인부담 (\$5,200)	· www.msu.edu
노던주립대학 (Northern State Univ.)	· 수업료: 면제 · 체재비: 본인부담 (\$2,600)	· www.northern.edu

* Semester(가을 · 봄 · 여름)제로서 수업료는 학기당 12학점 기준이며, 체재비는 기숙사비 · 식비 · 교재비 등이 포함된 평균적 금액임.

5. 전형방식: 학부과정 성적평가 50% · 면접평가 50%

6.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다. TOEFL 성적표 1부

7. 전형일정

- 가. 원서접수: 2005. 4. 25(월) ~ 5. 11(수), 국제교류실
- 나. 면접: 2005. 5. 13(금) 14:00 ~ , 국제교류실
- 다. 선정자 발표: 2005. 5. 16(월) 이후 홈페이지 게시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실 ☎ 02-2260-3876, 홈페이지 1층)로 문의 바랍니다.

국제교육원

취미와 취업을 위한 단기강좌

공강시간을 알뜰히 보내자!

- 1. 기간 및 강좌: 5월 9일 ~ 6월 2일(주1회 2시간씩 총 4회)

강좌명	강사	내용	시간	비고
방송댄스	강 별 남 채유교과 강사	방송댄스	수요일 2:30-4:30	- 신청은 40명 제한 - 면담일 적용
요 가	전 태 준 리조지아교양원	1. 요가호흡의 이해와 체험, 2. 목 어깨 등·허리·골반 건강을 위한 요가 자세, 3. 집중력 강화와 팔·다리 건강을 위한 요가 자세, 4. 두뇌정화와 자율신경조절 요요일	화요일 2:00-4:00	- 운동복 착용 - 수건
이미지 메이킹	김 은 진 영안이 이미지테크 연구소 이미지 컨설턴트	1. 이미지 분석 및 skill-up, 2. 메이크업&패션&클러 이미지 컨설팅, 3. presentation skill consulting.	목요일 2:00-4:00	

- II. 접 수 : 5월 2일 ~ 6일 여학생실 (계산관 1층, ☎ 2260-3058)

- III.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마감
- IV. 수료료 : 10,000원(100% 출석시 환불)
- 취지 : 학내에서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정서함양과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여 학생 실

졸업요건 영어패스제 토익시험(5월) 시행

- 1. 접 수 : 5. 9(월)~5. 13(금) 9:00~17:00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 2. 시 험 : 2005. 5. 21(토) 10:00~12:30 해화관 1, 2층
- 3. 대 상 : 영어패스제대상자 및 일반모의토익 신청자
- 4. 접수시 지참물 : 반명함사진 두장, 신분증(본인만 접수 가능)
- 5. 응시료 : 5,000원
- 6. 시험일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볼펜, 연필(사포)
- 7. 문 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60-3471, 3590)
- 8. 주의사항 : 가. 10시 00분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교육원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제7회 연등 & 축원문(사연) 대공모

아름다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에게 띄우고 싶은 축원문(사연)을 써서 마음을 전하는 기회

	연등부문	축원문부문
내 용	의미를 담은 아름답고 독창적인 등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A4 1~2장)
오름상(1명)	상금 30만원과 상장	상금 20만원과 상장
버금상(1명)	상금 20만원과 상장	상금 10만원과 상장
이차상(2명)	상금 5만원과 상장	상금 5만원과 상장

- 1. 공모기간 : 2005년 5월 2(월) ~ 5월 6(금) - 축원문 2005년 5월 2(월) ~ 5월 10(화) - 연등

- 2. 공모접수 : 여학생실 (계산관 1층)
- 2. 발표 및 시상 : 2005년 5월 12(목) 11:00 계산관 앞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8)로 문의바랍니다.

* 연등재료는 여학생실에서 드립니다.

정 각 원 · 여 학생 실



우리 함께 해요, 건학 100주년

We Start BUDP (Booming Up Dongguk Program)



동대신문사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 I

빌 게이츠의 마음 사로잡기

동대신문사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전, 저명인사 인터뷰>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만나고 싶은 저명인사 및 존경하는 인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편지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은 건학 100주년 홍보특사 및 동대신문사 명예기자로 임명하며, 섭외과정은 학교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E-mail 인터뷰, 전화 인터뷰, 화상 인터뷰 등 모든 방식이 가능하며, 현지 파견이 확정될 시에는 일체의 비용 전액을 학교에서 후원합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동대신문에 전문 게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편지 내용 : 인터뷰 대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자기소개 및 동국대학교 소개, 인터뷰대상에 대한 충실한 공부, 질문 항목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추후 확정함. ※ 영문 작성 원칙이나 국문도 가능. 분량은 제한없음)
2. 1차 공모 기간 : 2005년 5월 26일(목요일)까지
3. 홍보특사 선정 : 2005년 6월 23일(목요일), 개별 통지
4. 인터뷰 기간 : 하계 방학중.
5. 인터뷰 대상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 분야의 세계적 저명인사 및 존경하는 인물
6. 기타 : 인터뷰 내용은 2학기 동대신문에 게재하며, <도전, 저명인사 인터뷰>는 건학 100주년인 2006년까지 계속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다! 세계로 가는 젊은 동국 - 도전, 저명인사 인터뷰

동대신문사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 II

달빛-연등-시 축제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동대신문사는 이번 석가탄신일(5월 15일)을 맞아 대학 캠퍼스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달빛-연등-시 축제>를 개최합니다.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앞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달빛과 연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남산의 밤 풍경을 서울 시민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 캠퍼스가 지역 주민을 위해 휴식과 감성을 제공하는 고품격의 문화생산기지가 될 것을 선언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눈썹같은 초승달이 뜨는 **5월 13일(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캠퍼스에서는 조용하지만 감동적인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는 캠퍼스 전역에 연등이 걸리면, 마치 지상에 수천 개의 달이 뜬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웰빙의 기쁨을 한껏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지우고, 휴식과 감성 회복을 통한 웰빙 체험을 함께 나누어보는 것이 이번 행사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 100주년 홍보 기념품, 떡과 음료수 등을 선물하고 아울러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연꽃시 낭송회>, <달빛 음악회>, <남산달빛 무용제>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하였습니다. 연등은 캠퍼스 전역은 물론 캠퍼스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까지 내걸려서 남산 기슭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를 참조하시거나 동대신문사(☎ 2260-3491, 3492) 또는 100주년 기념사업회(2260-3122)로 문의 바랍니다.

주관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 학생처 / 동대신문사